

## “발달장애인 ·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집중 지원한다”

글 이정권 아산재단 복지사업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리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아산재단)은 2015년 사회복지 공모사업에 총 85개 사회복지기관을 선정하고, 2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사회복지 공모사업은 발달장애와 노노(老老)케어, 취약계층 자립, 복지시설종사자 역량강화 등 4개 분야로 나뉘었습니다. 4개 부문에 모두 515개 사회복지기관이 신청하였는데, 신청 기관의 편의를 위해 사업초안에 대한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현지 실태조사와 프레젠테이션 면접심사 등

4단계 심사를 거친 끝에 최종적으로 85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 발달장애 분야

자폐성 장애인과 지적 장애인 등에게는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산재단은 20여만 명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앞으로 10년간 집중 지원할 계획인데, 올해에는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와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9개 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회장 김용직)에서는 발달장애인의 부모가 사망한 후에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후견, 자산 관리, 의사 결정 등을 지원하는 모델 개발 및 시스템 구축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 윤종술)는 가족 지원과 자립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특성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즉, 성인 발달장애인 가정에서 자립 교육과 훈련, 전문가의 상담 등을 제공하고 성공사례를 모델화하여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아산재단은 두 곳을 포함한 9개 기관에 1년간 각각 1억여 원을 지원한 뒤 매년 사업평가를 거쳐 최대 3년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면서 자립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위). 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상담기법 교육을 하고 있다(아래)

### 노노(老老)케어 분야

소외된 노인의 심리와 상태는 같은 노인이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아산재단은 노인 자원봉사자를 통해 어려운 형편의 독거노인에게 안부전화와 말벗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노노(老老)케어 분야에 12개 노인복지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아산재단의 지역병원들과 연계해 진행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서울시립 용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박준기)’에서는 정서적·심리적 고립감을 경험하면서 삶의 만족도가 낮은 독거노인 60명을 발굴한 뒤 동년배의 노인 자원봉사단 20명과 연계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산재단의 새로운 사회복지사업인 노노케어는 독거노인의 안정적인 사회관계망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취약계층 자립 분야

올해에는 경기도 안성의 ‘꿈이 크는 일터’ 등 48

개 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아산재단은 이들 기관의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자립 및 교육시설 개보수, 생산 기자재 등에 대해 10억 원 규모로 지원합니다.

### 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분야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상담 기법을 교육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서울시아동복지협회(회장 김병삼)’ 등 모두 16개 기관에 3억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 그 외 사회·의료복지사업

아산재단은 의료비 지원 대상을 재단 산하병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의 저소득 환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방한 ‘SOS 의료비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올해에는 40억 원을 SOS 의료비로 지원합니다. 화재 등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복지시설을 긴급 지원하는 ‘SOS 복지시설 지원’ 분야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올해에는 5억 원을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등 사회·의료복지사업에 총 1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학사업에 53억 원을 지원하는 등 소외계층에 모두 242억 원을 지원합니다.

아산재단은 복지라는 용어조차 생소하던 1977년에 아산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사회복지재단입니다. 재단 설립 이듬해인 1978년부터 정읍과 보성·인제·보령·영덕·홍천·강릉 등 당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던 농어촌 지역에 종합병원을 설립하였고, 1989년에는 지방 아산병원들의 모병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의학 발전을 이끌고자 서울아산병원을 세워 의료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산재단은 지난 38년간 사회 변화에 따른 복지 욕구를 사회·의료사업에 적극 반영하면서 2014년까지 사회복지와 의료복지·장학·학술연구 등의 사업에 총 2천41억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